

# 농부 땀방울 담긴 강진 농산물 '명품 브랜드' 날갯짓

농기센터, 맞춤 브랜드 개발 교육  
8개 농가 참여...네이밍·상표 출원  
철학·지역 스토리 결합 '가치 창출'

강진군의 우수 농산물이 단순한 '좋은 품질'을 넘어, 농부의 땀방울과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아낸 '명품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났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지역 내 8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6일간 진행된 '2026 농가 맞춤형 가치향상 브랜드 개발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농가별 개성과 철학이 돋보이는 8개의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였다. 이번 교육은 시우디자인학교 노시우 대표의 지도로 브랜드 네이밍부터 핵심 콘셉트 도출, 포



강진군이 지역 농산물에 고유의 스토리와 감각적인 디자인을 더한 '명품 브랜드'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사진은 '2026 농가 맞춤형 가치향상 브랜드 개발 교육'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강진군 제공>

장제 디자인, 상품 구성, 상표출원 절차까지 실현형으로 진행됐다. 참여 농가들은 로고를 예쁘게 꾸미는 외형적

작업을 넘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직접 고민하고 디자인하며 '브랜드 자립'의 뜻깊은 첫걸음을 내디뎠다.

품평회에서 공개된 8개의 브랜드는 각기 다른 지향점과 사연을 품고 있다. 국령애 대표의 '다산명가'는 강진의 역사와 전통을 한 장의 로고에 담아 제품군의 확장성을 높였고, 박점자 대표의 '다산애차'는 기존 포장재의 실용성을 살리면서 전통의 품격을 더했다. 백영숙 대표의 '만경다설'은 전통 나무절구떡차의 차별성을 시각화했으며, 윤치열 대표의 '수향진'은 7년간의 양봉 철학을 진심으로 녹여낸 프리미엄 꿀 브랜드로 거듭났다. 또한 윤서영 대표의 '비팜학교'는 찾아가는 꿀벌 체험 교육의 공익적 가치를 브랜드화를, 김경섭 대표의 '봄에봄'은 첫 블루베리 출하에 맞춘 산뜻한 패키지를 완성했다. 끝으로 김동화 대표의 '진성농'은 마을 어르신들의 농산물까지 함께 품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

고, 이경철 대표의 '꽃피는 강진'은 지역 지도와 장미 심볼을 활용해 온라인 시장을 정조준했다. 교육에 참여한 농가들은 "맛있었던 택배 박스가 명품 패키지로 바뀌는 과정을 보며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군은 이번 브랜드 개발 교육을 계기로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서 벗어나, 고유한 스토리와 디자인을 더한 브랜드로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울 방침이다. 최영아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개발된 디자인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상품화와 농가 소득 증대로 직결되길 바란다"며 "농가들이 빚어낸 소중한 브랜드가 온전히 현장에 뿌리내려 강진 농산물의 확고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완도군, 오늘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문화예술의전당서...유공자 표창 등

완도군이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자 해조류 최대 주산지로서 바닷속 생태계를 되살리는 '바다식목일' 국가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6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과 해양수산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는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가 7일 오전 10시30분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 바다식목일은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으로 황폐해진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바다숲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국내 최대 김·미역·다시마 생산지이자 바다숲 조성에 앞장서 온 완도군에서 열려 그 의미

가 더욱 각별하다. 이번 행사에는 관계 기관과 주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하며, 유공자 표창 등 공식 행사와 함께 바다숲 네이밍 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돼 미래 세대에게 바다의 가치를 알리는 생생한 교육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는 지난 2일 개막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연계해 치러져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바다식목일 행사가 완도에서 열리는 것은 우리 바다가 그만큼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완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 전남광역자활센터, 사업장 환경 개선 4억 투입

12개 센터 내 14곳 노후 시설 정비

전남광역자활센터가 지역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해 도내 자활사업장 환경 개선에 예산을 투입한다. 6일 전남광역자활센터에 따르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위탁 공모사업인 '2026년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도내 12개 지역자활센터 소속 14개 사업장이 최종 선정돼 총 4억1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담양, 곡성, 구례, 보성, 영암, 무안, 해남, 신안 등 12개 시·군이다. 센터는 단순한 노후 시설 보수에서 벗어나 작업 안전성 강화, 휴게 및 생산 공간 개선 등 현장

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로 여건 향상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ESG 경영 기조에 맞춘 시설 지원으로 업무 효율과 참여자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린 바 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후 설비 교체와 작업 공간 정비에 집중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여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까지 다진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사업장 환경 개선은 근로 참여자의 안전과 사업장 운영 효율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지역 자활사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 진도군, 민원서비스 평가 '국무총리 표창'

3년 연속 최고 등급 수상

진도군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평가에서 진도군은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진> 이에 따라 군은 정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하

며,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역량을 확고히 입증했다. 또한 군은 이번 표창 수상 인센티브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3천만원을 '디지털 기반 민원서비스 고도화'와 쾌적한 민원 처리 환경 조성 등에 전액 재투자할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3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과 국무총리 표창은 전 직원이 군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 합심해 발로 댄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 "이틀만에 완판"...해남 반값여행 2천여팀 조기 마감

결제 금액 50% 지역상품권 환급  
19-34세 청년층 최대 70% 적용

해남군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선보인 '팡끝해남 반값여행'이 접수 시작 이틀 만에 1차분 물량을 조기 완판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을 받은 팡끝해남 반값여행 1차분 사업이 이틀날인 28일 총 2천200팀의 접수를 끝으로 조기 마감됐다. 이번 흥행 대박은 전날까지 열린 '해남공룡대축제' 일정과 맞물려 여행 비용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대거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반값여행은 외지 관광객이 해남에서 결제한 금액의 50%를 모바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로, 개인(5만원 이상 소비)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10만원 이상 소비)은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특히 19-34세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혜택이 눈길을 끈다. 청년 신청자는 환급률이 70%까지 확대 적용돼 개인 최대 14만원, 팀은 2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이번 1차 접수에서 MZ세대 여행객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남 여행 중 주요 관



해남군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보인 '팡끝해남 반값여행'이 조기 마감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최근 성황리에 열린 해남공룡대축제 현장 모습. <해남군 제공>

광지나 축제장 등 2곳 이상을 방문한 인증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근 지자체(강진·영암·완도·진도) 거주자는 제외되며, 연 매출 30억원 초과 대형 업소나 주유소 등 여행과 무관한 업종에서의 소비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은 오는 26

일 2차분, 다음 달 29일 3차분 접수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틀 만에 목표를 채울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남은 화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 함평군, 하절기 해충 차단 방역 돌입

10월까지 9개 읍·면 취약·관광지 등

함평군이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대대적인 위생 해충 차단 방역에 나선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 보건소와 각 읍·면사무소, 마을 자율방역단이 합동으로 지역 내 9개 읍·면의 방역 취약지와 주요 관광지, 인구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방역 소독을 본격 추진한다. 잔류 효과가 뛰어난 분무 방역과 침투력이 우수한 연무 방역을 병행 실시해 해충 차단 효율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군은 제2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축제장 내부와 인근 지역에 선제적인 방역을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약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주요 취약지에 무인 해충 제거기 11대를 신규 설치해 총 72대를 본격 가동 중이다. 아울러 군민들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휴대용 방역 장비 대여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하절기는 모기 등 위생 해충 활동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촘촘한 집중 방역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인 취약지 중심의 방역 시스템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기자

## 영광군,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나서

보훈지청 등 4개 유관기관 맞춘

영광군이 지역 유관기관들과 손잡고 서훈을 받고도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찾아 정당한 예우를 다하는 데 앞장선다. 6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경찰서, 전남서부보훈지청과 함께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제적부 확인의 어려움과 후손들의 고령화로 훈장 전수가 지연되는 한계를 지역 사회의 협업으로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955년 이후 정부 포상이 확대됐으나 일부 후손들은 선대의 유공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관내 미전수 독립유공자는 김창욱, 노연숙, 서용섭, 이병진, 이상숙, 임장택, 정상섭(이상 의병)을 비롯해 박명서, 양태환, 조구현, 최복섭(이상 3·1운동), 신애숙(학생운동) 등 총 12명이다. /영광=김동규기자

